

朝鮮刊本《精刊補註東坡和陶詩話》 수록 蘇軾詩 원문 연구*

金甫喲**

◁ 목 차 ▷

- I. 들어가며
 - II. 《詩話》 수록 蘇軾詩의 底本 문제 再考察
 - III. 《詩話》 수록 蘇軾詩의 교감학적 가치 탐구
 - 1. 합리적이거나 주목되는 글귀
 - 2. 호환이 가능한 글귀와 판본상의 오류
 - IV. 결어
-

I. 들어가며

2007년 중국학자 金程宇는 고려대학교 漢籍室에서 《精刊補註東坡和陶詩話》(이하 ‘詩話’)로 줄임)를 발견하고 이듬해 〈高麗大學所藏《精刊補註東坡和陶詩話》及其價值〉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¹⁾ 이후 《詩話》는 점차 학계의 주목을 끌기 시작하였고, 중국과 국내에서 이미 이와 관련된 몇 편의 논문이 더 나왔다.²⁾ 그러나 아직

* 이 논문은 2011년도 명지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명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 1) 金程宇 〈高麗大學所藏《精刊補註東坡和陶詩話》及其價值〉; 《文學遺產》 2008년 第5期. 이 논문은 이후 수정·보완을 거쳐 作者가 편한 《稀見唐宋文獻叢考》(北京, 中華書局, 2009)에 실렸다. 본고에서는 이 가운데 후자를 주로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 2) 본고 이전에 나온 《詩話》에 대한 연구는 金程宇의 연구 이외에도, 卞東波의 〈韓國所藏孤本詩話《精刊補註東坡和陶詩話》考論〉(《域外漢籍研究集刊》 第5輯, 北京, 中華書局, 2009), 黃瑄周·楊焄의 〈한국본 《精刊補註東坡和陶詩話》校讀〉(《中國語文學論集》 第71號, 中國語文學研究會, 2011), 楊焄의 〈新見《精刊補註東坡和陶詩話》殘本文獻價值初探〉(《文學遺產》 2012年 第3期), 洪瑞妍의 〈朝鮮本《精刊補註東坡和陶詩話》에 대한

까지 《詩話》와 관련된 연구는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특히 그 안에 수록된 蘇軾 ‘和陶詩’ 원문에 대한 정밀한 검토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령 황선주와 楊焄의 〈한국본 《精刊補註東坡和陶詩話》校讀〉은 원작으로서의 陶淵明詩에 대해서만 교감을 실시하였고, 和作인 蘇軾과 蘇轍의 ‘和陶詩’는 다루지 않았다.³⁾

이에 필자는 고려대 소장 華山文庫本(청구기호: 화산 貴 181-1 및 화산 貴 181-2) 및 晚松文庫本(청구기호: 만송 貴 181A4), 그리고 황선주 개인 소장본⁴⁾ 등 국내 《詩話》 잔본에 수록된 蘇軾詩 원문을, 역대 蘇軾詩 판본과의 비교를 통해서 세밀하게 분석해 보았다. 구체적인 연구 경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시기적으로 《詩話》本보다 앞서⁵⁾ 南宋시기 ‘東坡七集’本 및 施元之·顧禧의 《註東坡先生詩》와의 비교를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詩話》本보다 뒤에 나온 판본 가운데 明清시기 蘇詩 판본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明版 《東坡續集》 및 오늘날 가장 많이 통용되는 中華書局本 《蘇軾詩集》과의 비교를 진행하였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詩話》本의 교감학적 가치를 탐구하고 그 결과를 다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문헌적 고찰)《中國語文論叢》第54輯, 中國語文研究會, 2012) 등이 있다. 기존 연구 성과에 대한 소개는 홍서연의 논문에서 이루어진 바 있으므로(230-231쪽) 본고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한편 홍서연의 논문은 기존 논문들이 문헌적 가치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달리 《詩話》에 대한 실사를 통해 관련 판본들의 현황을 살피는 데 중점을 두었고, 아울러 《詩話》의 편찬취지, 편찬·간행시기, 편찬자 蔡正孫의 시학적 관점, 편찬 체제 등을 탐구하였다.

- 3) 황선주 교수는 필자에게 개인 소장본 《詩話》(권8-10)를 복사해주면서 蘇軾과 蘇轍의 ‘和陶詩’ 관련 부분의 연구를 당부하였다. 소중한 자료를 보내주고 또 선행 연구로써 본 연구에 적지 않은 계발을 준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황선주 교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 4) 참고로 세 책의 형태사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화산본: 약 22.1×14.2cm, 半郭 약 16.3×10.5cm, 每半葉 8行 16字, 小字 雙行16字, 上下細黑口, 上下內向黑魚尾, 上下單邊(左右單邊과 左右雙邊이 混入됨)/ 만송본: 약 24.3×13.7cm, 半郭 약 15.5×10.6cm, 每半葉 8行 16字, 小字 雙行16字, 上下細黑口, 上下內向黑魚尾, 上下單邊(左右單邊과 左右雙邊이 混入됨)/ 황선주본: 약 18.8×13.2cm, 半郭 약 17×11.2cm, 每半葉 8行 16字, 小字 雙行16字, 上下細黑口, 上下內向黑魚尾, 上下單邊(左右單邊과 左右雙邊이 混入됨) (홍서연, 앞의 논문, 239-242쪽 참조)
- 5) 홍서연의 연구에 따르면 《詩話》의 편찬 시기는 蔡正孫의 《詩林廣記》가 편찬된 1289년을 전후한 어느 시점부터 《聯珠詩格》이 편찬된 1300년 사이인 元初의 어느 시점이라고 한다. (홍서연, 앞의 논문, 236-237쪽 참조)

한다.

- 가. 합리적이거나 주목되는 글귀
- 나. 호환이 가능한 글귀와 판본상의 오류⁶⁾

한편 판본 간의 비교와 원문의 교감에 있어서 판본 계통을 확인해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논의가 충분치가 못한 관계로 이 문제를 좀 더 세밀하게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필자는 본격적인 원문 비교에 우선하여 《詩話》本에 수록된 蘇軾 ‘和陶詩’의 底本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자 한다.

논의에 앞서 《詩話》와의 비교에 활용된 주요 판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南宋 黃州刊本《東坡先生和陶淵明詩》4권.⁷⁾ 이하 ‘黃州本’으로 줄임.
2. 南宋 施元之·顧禧合註《註東坡先生詩》42권.⁸⁾ 이하 ‘施顧註本’으로 줄임.
3. 明版 ‘東坡七集’ 중《東坡續集》.⁹⁾ 이하 ‘續集’으로 줄임.

- 6) 이러한 분류는 황선주·楊焄〈한국본《精刊補註東坡和陶詩話》校讀〉의 분류법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 7) 이 책은 南宋시기 소위 ‘東坡七集’에 속하는 판본으로, 그 원본이 현재 臺灣國立中央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필자는 그 影印本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한편《中國蘇軾研究》第2輯(北京, 學苑出版社, 2005)과 第3輯(2007)에서는 그 부록에 이 책의 民國시기 覆刻本을 影印·刊行하여 연구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覆刻本인 관계로 형태가 원본과 거의 같으나 필획의 모양에서 아주 미세한 차이가 나고, 蘇軾의〈和陶雜詩〉其六의「物色恐相值」의 ‘值’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누군가가 붓으로 ‘值’자로 수정한 흔적이 남아 있는 등, 원본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 8) 이 책의 판본은 殘本 형태로 몇 종이 남아 있다. 필자가 활용한 것은, 鄭騫·嚴一萍編校《增補足本施顧註蘇詩》(臺北, 藝文印書館, 1980)에 수록된 南宋 景定殘本이다. 한편 이상의 송대 판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拙稿〈宋元時期 蘇詩版本에 대해서〉(《中國文學》60輯, 韓國中國語文學會, 2009)를 참조하기 바람.
- 9) 明版 ‘東坡七集’은 明 成化4年(1468)에 吉安知府 程宗이 간행한 原本과 明 嘉靖 13年(1534) 江西布政司에서 成化本을 重刊한 판본으로 나누어진다. 그 후 淸 光緒 34年(1908) 寶華齋에서는 繆荃孫의 교감을 거친 成化本을 影刊해내었고, 이를 民國시기 中華書局에서《四部備要》에 포함시켜 새롭게 인쇄하여 출판하였다. 필자가 연구에 활용한 것은 臺灣中華書局에서 1970에 출판한《四部備要》排印本《東坡七集》이다. 明版 ‘東坡七集’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拙稿〈明代 蘇詩版本에 대해서〉(《中國語文論叢》第46輯, 中國語文研究會, 2010)를 참조하기 바람.

4. 孔凡禮點校本《蘇軾詩集》.¹⁰⁾ 이하 ‘孔本’으로 줄임.

II. 《詩話》 수록 蘇軾詩의 底本 문제 再考察

《詩話》本の 저본과 관련하여 金程宇는 그것에 수록된 蘇軾 ‘和陶詩’가 《和陶詩》 판본 계통을 저본으로 하여 校錄하였을 것이라는 추론을 한 바 있다.¹¹⁾ 여기서 말하는 《和陶詩》 판본 계통이란 宋刊 ‘東坡七集’本 혹은 그것과 관련이 깊은 分類合編本 계통으로, 현존하는 것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黃州本과 일본 建仁寺 兩足院에 소장된 《東坡集》¹²⁾을 들 수 있다. 그러나 金程宇가 든 논거는 그의 추론 결과와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논거들을 다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東坡和(陶淵明停雲詩)〉

「自立冬以來, 施本¹³⁾、孔本同。黃州本、兩足院本作「自立冬來」。

「天水冥滾」之‘冥’, 兩足院本、黃州本同。施本、孔本作‘溟’。

「彈指太息」之‘太’, 施本、孔本同。兩足院本、黃州本作‘歎’。

2. 〈東坡和(時運)〉

「誦淵明《時運》詩云, 施本、孔本作「詠淵明《時運》詩云, 兩足院本、黃州本作「詠淵明詩云」。

「下有碧潭」之‘碧’, 兩足院本、黃州本同。孔本作‘澄’。施本作「澄石刻作澄, 集本作碧」。

10) 이 책은 淸 王文誥의 《蘇文忠公詩編註集成》을 저본으로 삼았고, 北京의 中華書局에서 출판되었다. 필자가 활용한 것은 1996년에 출판된 판본이다.

11) 金程宇, 앞의 책, 190-191쪽.

12) 일본학자 吉井和夫는 兩足院本에 수록된 蘇軾 ‘和陶詩’가 작품의 編次에 있어서 黃州本과 일치하고, 문자에 있어서도 차이가 거의 없음을 밝힌 바 있다. (吉井和夫 〈兩足院本《東坡集》校勘記(一) — 東坡和陶詩(上)〉; 《文藝論叢》第27號, 大谷大學文藝學會, 1986, 48-64쪽 참조.)

13) 여기서 ‘施本’은 본고에서 말하는 施顧註本을 가리킨다. 필자는 淸 邵長蘅 刪補本 《施註蘇詩》와 구분하고자 鄭騫·嚴一萍編校 《增補足本施顧註蘇詩》의 書名을 참고하여 金程宇와 다른 명칭을 선택하게 되었다.

「瓦豈有足」, 施本、孔本同。兩足院本、黃州本作「瓦固無足」。

3. 〈勸農〉

「所產秔稌」, 施本、孔本同。兩足院本、黃州本作「所產秔杜」。

「珍怪是殖」, 孔本作「珍怪是直」。施本作「珍怪是植」。兩足院本、黃州本作「怪珍是值」。¹⁴⁾

「芋羹薯麩」¹⁵⁾之‘麩’, 兩足院本、黃州本同。施本作‘麩」¹⁶⁾。孔本作‘糜」。

「父兄搢挺」¹⁷⁾之‘挺’, 施本、孔本同。兩足院本、黃州本作‘挺」。

이상 10가지 논거들 가운데, 이른바 《和陶詩》 판본 계통과 글귀가 같은 것은 고작 3가지에 불과하고, 그것과 다소 거리가 있는 施本 및 孔本과 일치하는 것이 5가지¹⁸⁾로 오히려 더 많다. 따라서 이러한 논거들을 바탕으로 《詩話》가 《和陶詩》 판본 계통을 저본으로 삼았다고 추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詩話》가 어떤 판본을 저본으로 하였는지 다시 검토하기 위해, 필자는 국내 소장 《詩話》本에 수록된 蘇軾 ‘和陶詩’의 원문 전체를, 《詩話》보다 이전 시기에 간행된 黃州本과 施顧註本の 그것과 비교·대조해보았다. 그 결과 《詩話》本이 현전하는 어느 특정 蘇軾 ‘和陶詩’ 판본을 저본으로 삼은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떤 작품은 黃州本과 거의 일치하고(예를 들면, 〈和陶始作鎮軍參軍經曲阿〉¹⁹⁾), 또 어떤 작품은 施顧註本과 상대적으로 더욱 가깝다.(예를 들면, 〈和陶桃花源詩〉) 그러나 대다수의 작품들은 위에서 金程宇가 예시한 것처럼 한 작품 안에 黃州本과 같은 글귀와 施顧註本과 같은 글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혹은 이 두 판본과는 상관없는 글귀도 도처에서 적지 않게 발견된다.

그렇다면 《詩話》本은 어떤 책을 저본으로 삼았을까? 현전하는 판본 가운데 《詩

14) 필자의 조사결과 黃州本과 兩足院本에는 「怪珍是植」으로 되어 있고, 施顧註本도 이와 같다. 金程宇가 잘못 인용하였다.

15) 실제로는 「芋羹薯麩」로 되어 있다.

16) 필자가 활용한 施顧註本에는 黃州本과 마찬가지로 ‘麩」로 되어 있다.

17) 이는 잘못된 인용이다. 《詩話》本에는 「父母搢挺」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른바 「施本、孔本同」 역시 오류이다.

18) 주 17)의 상황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4가지이다.

19) 작품의 篇名은 《詩話》本 陶淵明詩 원작의 篇名에 필자가 임의로 ‘和陶」를 덧붙인 것임을 밝힌다. 이는 陶詩와의 구별을 위한 것이다.

話》의 저본을 찾을 수 없다면 실전된 宋元시기 판본 가운데 그것의 저본이 있지 않았을까? 이미 실전된 판본 가운데 《詩話》의 저본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우선 《詩話》本 곳곳에 傅仙谿의 주가 보이는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南宋 陳振孫의 《直齋書錄解題》에는 「《和陶集》十卷. 蘇氏兄弟追和, 傅共註」라는 기록이 보이고²⁰⁾, 元 馬端臨의 《文獻通考》 권248 經籍考75에도 이 책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²¹⁾, 이 十卷本 《和陶集》에 주를 단 傅共이 바로 傅仙谿이다.²²⁾ 그렇다면 이 傅共註本 《和陶集》 10권이 《詩話》의 저본이었을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傅共註本은 전해지는 판본이 하나도 없어 그 구체적인 면모를 살필 길이 없다. 따라서 傅共註本이 다시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 이상 그것이 《詩話》본의 저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詩話》本에는 黃州本 및 施顧註本과는 다르면서 오히려 후대에 나온 《續集》과 글귀가 같은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예를 들어 《詩話》本 권4 蘇軾 〈和陶和郭主簿〉의 「却念四十年」은 黃州本 및 施顧註本에는 모두 「却去四十年」으로 되어 있는데, 《續集》의 글귀는 공교롭게도 《詩話》本과 같다. 明版 《續集》 12권이 明 仁宗 시기에 새겨진 미완의 蘇軾詩文集 全集의 翻刻本을 바탕으로 하였고, 그 翻刻本의 원본이 宋本이었음을 감안해보면²³⁾, 《詩話》本의 저본이 현재는 실전되어 남아 있지 않는 南宋시기 蘇軾詩文集 가운데 하나였을 가능성을 역시 상정해볼 수 있겠다.²⁴⁾ 그러나 明版 《續集》과도 원문의 출입이 적지 않고, 현전하지 않는 南宋시기 蘇軾詩文集의 면모 또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추정에도 역시 한계가 따른다.

20) 陳振孫 《直齋書錄解題》(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5), 446쪽.

21) 馬端臨 《文獻通考》(北京, 中華書局, 2003), 1958쪽.

22) 蘇軾 ‘和陶詩’에 대한 傅共의 주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은 金程宇, 앞의 책, 184-185쪽을 참조하기 바람.

23) 이와 관련하여 章培恆·徐艷은 仁宗시기 翻刻本의 원본이 南宋 麻沙書坊刊 《大全集》 계통의 판본이라고 보았다. (章培恆·徐艷 〈關於五卷本《東坡志林》的眞僞問題〉; 《南京師範大學文學院學報》, 2002年 第4期, 164-165쪽) 明版 《續集》의 판본 원류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拙稿 〈明代 蘇詩 版本에 대해서〉, 336-340쪽을 참조하기 바람.

24) 이를 사실로 가정하고 그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 추측해보면, 宋刊 ‘七集’本 계통인 黃州本과는 차이가 적지 않으므로, 分類合編本인 《大全集》 계통 혹은 제3의 형태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그러나 이 또한 추정에 불과할 따름이다.

이와 같이 蔡正孫이 《詩話》를 편찬할 당시에 어떤 책을 주로 참조했는지는 현재로서는 고증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가 어느 특정 판본의 글귀만을 오로지 수용하지 않았음은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金程宇가 이미 살핀 바와 같이, 《詩話》에 수록된 陶淵明詩에는 ‘一作’이라는 校語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서 蔡正孫이 陶淵明詩를 수록함에 있어서 여러 판본을 참조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蘇軾과 蘇轍의 ‘和陶詩’를 수록함에 있어서도 당시까지 전해지던 여러 판본을 참조했을 가능성이 크다. 《詩話》의 蘇軾 ‘和陶詩’ 부분에는 비록 陶淵明詩에 대한 것만큼 풍부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蔡正孫이 다른 판본들을 참조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 분명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和陶雜詩〉其七의 주석에서 그는 「이 시의 ‘藍橋’는 어떤 판본에는 ‘藍喬’로 되어 있다²⁵⁾」라고 하였고, 〈和陶讀山海經〉其一 「可作三老圖」의 ‘三老’에 대해 「여러 판본에는 ‘三老圖’가 ‘三士(圖)’로 되어 있다²⁶⁾」라는 주석을 달았다. 그리고 〈和陶貧士〉其五 「餼酒出太官」의 ‘餼酒’에 대해서는 「傳仙谿가 註를 단 ‘和陶詩’ 판본에 따르면, ‘餼酒’는 ‘羔酒’로 되어 있다. 그 주석에 이르길, “太官의 주방에서 조정에 있는 百官들에게 양고기와 술을 공급하였다”라고 하였다. 어느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 ‘羔’字를 가지고 太官의 양을 말한다면 비록 이치에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重九節의 故事를 취해보면 그것과는 무관해 보인다. 시를 잘 아는 자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상의해보기를 원한다²⁷⁾」라는 주석을 덧붙였다.²⁸⁾ 따라서 《詩話》의 저본과 관련하여 그것의 명확한 판본계통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詩話》의 편찬에 있어서 복수의 판본들이 참조되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제시할 수 있겠다.

한편 卞東波는 《詩話》의 주석 가운데 많은 부분이 施顧註本을 참고하고 인용하였다고 말한 바 있다.²⁹⁾ 이러한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석

25) 「此詩‘藍橋’一本作‘藍喬’.」(황선주본 《詩話》권9)

26) 「諸本, 三老圖作‘三士’.」(만송본 《詩話》권11) ‘圖’는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추가하였다.

27) 「傳仙谿註和陶詩本, ‘餼酒’乃作‘羔酒’. 註云: “太官廚供在朝百官羊酒”, 未詳孰是. 雖以羔字言太官之羊, 不爲■理, 但取重九事則無關涉■, 願與言詩者商之.」(황선주본 《詩話》권10)

28) 이 註文을 통해볼 때, 《詩話》가 만일 특정 판본을 저본으로 하였다면, 그것이 傳共註本일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인다.

29) 卞東波, 앞의 논문, 428-429쪽.

의 세밀한 부분까지 비교·검토해야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해볼 계획이다. 그러나 일단 卞東波의 주장을 임시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각 판본간의 異同을 살펴보면, 위에서 金程字가 살핀 것과 마찬가지로 黃州本 및 兩足院本과는 다르지만 施顧註本과 일치하는 글귀가 매우 많음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詩話》가 주석뿐만 아니라 원문에 있어서도 施顧註本을 적지 않게 참조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詩話》가 施顧註本의 주석을 활용하였다는 언급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³⁰⁾ 원문에 있어서도 施顧註本과 일치하는 경우, 원본이 송본인 《續集》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것을 필자의 전체적인 비교·대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다.³¹⁾ 다음 〈和陶歸園田居〉其五 중의 예문은 더욱 《詩話》가 施顧註本의 원문을 참조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황주간본	施顧註本	《詩話》
缺	霜颺散氛祲, 廓然似朝旭	缺 註云: 不和旭字一韻

《詩話》가 施顧註本을 참조했다면, 黃州本 혹은 기타 판본에서 누락한 ‘霜颺’ 이하 두 구를 간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蔡正孫이 단 註를 통해서, 그가 이 두 구의 존재를 전혀 모른 채 蘇軾이 마지막 ‘旭’字韻에 화답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施顧註本과 《詩話》의 관계가 주석의 꼼꼼한 비교를 통해

30) 이에 대해서 卞東波는 ‘奇怪’하다고 평가하였다. 劉尙榮은 일찍이 《宋會要》의 기록을 근거로, 施元之의 아들로 施顧註本의 편찬에 참여한 施宿이 南宋 嘉定 연간에 거듭 탄핵을 받았고 심지어는 死後에도 파직과 가산 몰수를 당한 상황을 파악하였고, 그의 이러한 정치적 불우가 施顧註本이 이후에 거의 자취를 감추듯 하며 널리 유통되지 못한 것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았다. (劉尙榮 《蘇軾著作版本論叢》, 成都, 巴蜀書社, 1988, 91쪽) 蔡正孫이 施顧註本을 활용했다면, 어쩌면 이런 이유에서 施顧註本 편찬자의 이름을 들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31) 金程字가 「施本、孔本同」이라고 분석한 것 가운데 잘못 분석한 1條를 제외한 나머지 4條의 원문이 《續集》에서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나머지 예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다. 다만 Ⅲ장에서 각 판본간의 출입을 비교하는 과정 속에서 관련 예들이 얼마간 더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서 확실하게 조명되기 전에는, 원문의 단순한 비교를 바탕으로 《詩話》본이 원문을 확정함에 있어서 施顧註本 역시 참조했을 것이라고 속단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Ⅲ. 《詩話》 수록 蘇軾詩의 교감학적 가치 탐구

앞 장에서 우리는 《詩話》에 수록된 蘇軾詩의 저본을 명확히 확인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것이 기존의 여러 판본을 참조하였고 편찬자 蔡正孫의 교감을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詩話》와 여타 판본들 간의 원문 비교를 통해서 그것에 수록된 蘇軾詩의 교감학적 가치를 찾아보고자 한다.

1. 합리적이거나 주목되는 글귀

새로운 판본이 발견되면 가장 먼저 다른 판본과의 異同을 살피게 되고, 거기서 다시 의미 있는 異文을 찾게 된다. 《詩話》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의미 있는 異文은 비교적 많다. 그 중 다른 판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詩話》본에만 있는 글귀로서 합리적인 것들을 우선 소개하도록 하겠다.

利爾鋤耜, 너희의 호미와 보습을 갈아 놓고
好爾耕耨. 너희의 농사일을 좋아하라.
(〈和陶勸農〉, 화산본 권1)
- 黃州本: 鄰耦 / 施顧註本, 《續集》, 孔本: 鄰偶

黃州本の '耦'는 '짝'이라는 의미에서 施顧註本の '偶'와 실상 같다. 그렇다면 《詩話》를 제외한 나머지 판본이 모두 같은 글귀를 쓰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시는 쟁을 파는 것을 업으로 삼으며 농경에 전혀 힘쓰지 않는 해남도 주민들에게 농사를 권하려는 취지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耕耨' 역시 합리적인 글귀로 볼 수 있겠다. 「너희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라(好爾鄰偶)」의 경우도, 이 시의 첫 章에서 海南島의 원주민 黎族이 난폭한 행동을 하는 것을 묘사한 것에 비취보면(「怨忿劫質, 尋戈相因」) 계몽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으로 뜻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耕耨'보다는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 밖에도 같은 시에 나오는 「慈良孝愛」는 다른 판본에는 모두 「我良孝愛」로 되어 있는데, 전자는 黎族들이 주체로서 「자애롭고 선량하며 효도와 사랑을 실천한다」는 뜻으로, 「祖跣何愧」와 연결되어 그들이 농사에 힘쓰면서 이렇게 선량해질 수만 있다면 옷통을 벗고 맨발로 다닌다 할지라도 부끄러울 게 없다는 뜻을 잘 드러낸다. 이에 반해 '我'를 쓸 경우, 그 주체가 蘇軾 자신인지 黎族을 가리키는 것인지 불분명해지고, 그것이 만약 蘇軾 자신을 가리킨다면 詩意의 전개가 얼마간 부자연스러워지는 경향이 있다.

登高雲海寬,	높은 곳에 올라보니 구름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고,
醉覺三山傾.	술에 취하니 삼산이 기울어지는 느낌.
長歌曳屣參,	나는 짚신을 끌며 소리 높여 노래 부른 曾參과 같고
起舞帶索榮.	새끼로 띠를 두른 채 일어나 춤을 춘 榮啓期和 같다네.

(《和陶九日閑居》, 화산본 권2)

- 黃州本, 施顧註本, 《續集》, 孔本: 望雲海
- 黃州本, 施顧註本: 振履商/《續集》, 孔本: 振履商

商은 商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타 판본의 글귀는 모두 일치하고, 《詩話》본만 다른 글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雲海寬'과 '望雲海'는 의미에 있어서는 모두 통한다. 그럼에도 필자가 '雲海寬'이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이 다음 구절과 대를 잘 이룸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비단 다음 구절뿐만 아니라, '雲海寬'을 쓸 경우 이 시는 5구부터 16구까지³²⁾ 모두 2구씩 대를 이루게 됨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비해 '望雲海'는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다음으로 '振履商'과 '曳屣參'의 비교에 있어서는, 施顧註本과 《詩話》본에 달린 관련 주석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자의 주석은 《新序》를 출처로 하여 「原憲은 지팡이와 신발을 끌고 길을 가며 商頌을 노래 불렀는데, 그 소리가 천지에 가득했고 마치 金石 소리가 나는 듯하였다. 천자도 그를 신하로 삼지 못하고, 제후들도 그를 벗으로 삼지 못하였다」³³⁾이고, 후자의 주석은 《莊子·遜

32) 「龍山憶孟嘉, 栗里懷淵明. 鮮鮮霜菊艷, 溜溜糟床聲. 閑居知令節, 樂事滿餘齡. 登高雲海寬, 醉覺三山傾. 長歌曳屣參, 起舞帶索榮. 坎軻識天意, 淹留見人情。」

33) 「原憲曳杖拖履, 行歌商頌, 聲滿天地, 如出金石, 天子不得而臣也, 諸侯不得而友也。」(施顧註本, 권41)

王³⁴⁾을 출처로 하여 「曾子在衛나라에 살 때, …… 窺(窺)신을 끌고 商頌을 노래 불렀는데, 그 소리가 천지에 가득했고 마치 金石 소리가 나는 듯하였다. 천자도 신하를 삼지 못하였고, 제후도 벗으로 삼지 못하였다」³⁵⁾이다. 거의 같은 내용으로 典故의 주인공이 原憲과 曾子로 다를 뿐이다. 문제는 시구의 말미에 《詩話》본은 曾子의 이름인 ‘參’을 쓴 반면, 여타 판본들은 모두 商頌의 ‘商’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 구 「起舞帶索榮」의 ‘榮’이 춘추시대 隱士인 榮啓期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대구를 고려하면 인명인 參이 보다 합리적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다른 판본에도 같거나 비슷한 글귀가 있지만, 《詩話》를 통해서 해당 글귀가 새롭게 혹은 보다 주목받을 수 있는 예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러한 글귀들은 향후 蘇軾 ‘和陶詩’의 교감에 있어서 반드시 참조되어야 할 것들이고, 이 중에서 통행본인 孔本과 차이를 드러내는 가운데 합리적인 글귀들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仰見江搖山, 고개를 드니 강이 산을 흔드는 것이 눈에 들어오고
俯見月在衣. 고개를 숙이니 달이 내 옷을 비추는 것이 보이네.
(《和陶歸園田居六首》其三, 화산본 권2)
- 黃州本 同/ 施顧註本, 《續集》, 孔本: 觀

주지하다시피 蘇軾은 일찍이 陶淵明 〈飲酒〉其五의 「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 구에 대해서 「국화를 따는 일로 말미암아 산이 (문득) 눈에 들어와(見) 境과 意가 만나게 된 것이니, 이 구절에 신묘함이 가장 풍부하다. 최근의 俗本에는 모두 ‘南山’을 (처음부터 보려고 생각하고) 바라본다(望)’로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이 시의 신묘한 기운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³⁶⁾라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 北宋 당시의 ‘俗本’ 뿐만 아니라 《文選》이나 《藝文類聚》 등에도 ‘見南山’은 ‘望南山’으로 되어 있다.³⁷⁾ 王國維가 ‘無我之境’의 대표적인 구절로 인용³⁸⁾한 이 두 구는 어찌면 蘇軾

34) 遜王은 실제로는 ‘讓王’으로 宋 英宗의 아버지 ‘允讓’의 諱를 피한 것이다. (홍서연, 앞의 논문, 243-244쪽 참조.)

35) 「曾子居衛, …… 曳屣而歌商頌, 聲滿天地, 若出金石. 天子不得臣, 諸侯不得友.」

36) 〈題淵明飲酒詩後〉: 「因採菊而見山, 境與意會, 此句最有妙處. 近歲俗本皆作‘望南山’, 則此一篇神氣都索然矣.」 (孔凡禮點校《蘇軾文集》, 北京, 中華書局, 1999, 2092쪽)

37) 袁行霈《陶淵明集箋註》(北京, 中華書局, 2003), 247쪽 참조.

의 창조적인 독법을 바탕으로 새롭게 탄생한 것일 수도 있다. 어쨌든 ‘望南山’으로 쓸 경우 바로 ‘有我之境’으로 전락하고 詩意에 다소 손색이 있게 된다. 蘇軾 ‘和陶詩’ 가운데 이와 비슷한 경우가 바로 위에서 든 〈和陶歸園田居六首〉其三의 두 구이다. 黃州本이나 兩足院本과 같이 지난날 많이 통용되지 못하던 판본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판본이 ‘仰觀’으로 쓰고 있었는데, 《詩話》의 글귀를 통해서 ‘仰見’이 다시금 주목받을 수 있다.

漸離非不傷, 高漸離의 일은 슬프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陸戟加周營. 황제 주변의 경계만 더욱 강화하게 만들었지.
(〈和陶(詠)荊軻〉, 황선주본 권10)

- 黃州本 同/ 施顧註本, 《續集》, 孔本: 雖

蘇軾은 이 작품에서 燕나라 태자 丹이 秦始皇을 죽이기 위한 자객으로 荊軻를 보낸 것을 비판하였고, 荊軻에 대해서도 ‘狂生’일 뿐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하였다. 이는 陶淵明이 荊軻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그의 실패를 안타까워한 것과는 사뭇 다른 내용으로 蘇軾 ‘和陶詩’의 개성적인 면모를 잘 보여준다. 蘇軾은 秦나라를 멸망시키려면 천천히 살피면서 편안하게 거사를 도모해야 했는데, 태자 丹이 성급하고 무모한 계획을 실행시켰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위 두 구에서 高漸離의 전고를 운용함에 있어서도 이런 전체적인 맥락과 부합하게 할 필요가 있다. ‘雖’자를 쓰게 되면 「高漸離는 (秦始皇을) 비록 상하게 하지는 못하였지만」으로 해석이 된다. 아래 구와의 연결은 비교적 자연스럽지만, 高漸離의 행위에 대한 蘇軾의 가치판단이 불분명해지는 경향이 있다.³⁸⁾ 이에 반해 ‘非’자를 쓰면 ‘傷’은 ‘悲傷’의 의미로 풀이되면서, 두 구는 荊軻 사건 이후에 秦始皇에게 고초를 겪다가 그를 죽이지도 못하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高漸離의 처지를 애도하면서도,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황제 주변의 경계만 더욱 강화된 것을 꼬집어 비판하는 뜻을 표현하게 된

38) 唐圭璋編 《詞話叢編(第12冊)》(臺北, 廣文書局, 1970), 4243쪽 참조.

39) 「高漸離는 秦始皇을 상하게 하지는 못하고서, 오히려 황제 주변의 경계만 더욱 강화하게 만들었다」는 식의 표현이 논리에 있어서 합당하고 蘇軾이 앞부분에서 한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게 된다. 양보 관계를 나타내는 ‘雖’자가 개입되면, 蘇軾이 高漸離의 행위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인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인지 애매해진다.

다. 전체 시의 연결이 보다 자연스러워지고, 시의主旨 역시 보다 강화되는 효과를 보게 되는 셈이다.

陶淵明〈讀山海經十三首〉, 其七首皆仙語.

도연명의 〈讀山海經十三首〉 가운데 일곱 수는 모두 仙語로 이루어져 있다.

(〈和陶讀山海經十三首序40〉, 만송본 권11)

- 黃州本, 《續集》同/ 施顧註本, 孔本: 其七

단순히 ‘其七’만으로 표기하면 그것이 13수 가운데 ‘일곱 번째 작품’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곱 수’를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그러나 ‘其七首’로 표기하면 그 뜻이 더욱 분명해진다.⁴¹⁾

平生我與我, 평생 나는 나 자신과 함께 하였으니
舉意輒相然. 생각하는 것마다 서로 잘 들어맞았네.

(〈和陶連雨獨飲〉其一, 화산본 권3)

- 黃州本, 施顧註本, 《續集》同/ 孔本: 與爾.

앞 구는 東晉시기 인물 殷浩의 전고를 사용하고 있다. 《晉書·殷浩傳》에서는 「殷浩는 어려서 桓溫과 이름을 나란히 하였고, 매번 마음속으로 서로 경쟁하였다. 桓溫이 일찍이 殷浩에게 물었다. “그대는 나와 비교하여 어떤가?” 殷浩가 대답하였다. “나와 그대는(我與君) 오랜 세월 서로 경쟁하였소. (굳이 그대와 나 가운데 선택하라면) 난 차라리 내가 되겠소.”⁴²⁾라고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2인칭을 나타내는 孔本の ‘爾’가 보다 적합한 것처럼 보인다. ‘爾’로 보자면 그것이 도대체 누구 혹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다소 불분명하다. 혹자는 그것을 이 시의 序에 나오는 ‘荷

40) 蘇軾은 할아버지 蘇序의 諱를 避하여 ‘序’를 ‘引’으로 고쳐 썼는데, 黃州本과 같이 南宋 시기에 간행된 蘇軾의 시집에서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그러나 《詩話》本은 그냥 ‘序’라는 글자를 썼다.

41) 蘇軾이 말한 ‘일곱 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들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필자가 陶淵明의 〈讀山海經〉을 살펴본 결과, 제2수부터 제8수까지 일곱 수가 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42) 房玄齡等 《晉書·殷浩傳》: 「浩少與溫齊名, 而每心競. 溫嘗問浩: “君何如我?” 浩曰: “我與君周旋久, 寧作我也.”」(北京, 中華書局, 1997), 2047쪽.

葉杯'로 보기도 하였다.⁴³⁾ 蘇軾은 해남도로 폄적되고 나서 衣食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酒器를 모두 팔았는데, 오직 이 荷葉杯만은 팔지 않고 남겨두었다고 한다. 이는 蘇軾이 그만큼 이 酒器를 소중히 여겼음을 뜻하므로, '爾'를 '荷葉杯'로 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與我'로 보는 것 또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선 《世說新語·品藻》에는 앞의 殷浩와 관련된 기록이 「桓溫은 어려서 殷浩와 이름을 나란히 하였고, 늘 경쟁하는 마음이 있었다. 桓溫이 殷浩에게 물었다. “경은 나와 비교하여 어떤가?” 殷浩가 말하였다. “나는 나 자신과(我與我) 오랜 세월 동안 경쟁(혹은 교류)하였을 뿐이니⁴⁴⁾, 차라리 (계속) 나로 살겠소.”⁴⁵⁾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蘇軾이 《世說新語》 등을 통해 내려오는 고사를 전고로 활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詩意에 있어서도 '與我'가 비교적 합리적이다. 즉 '與我'로 볼 경우 첫 4구⁴⁶⁾는 바로 외부세계와는 독립적으로 늘 내면의 自我를 통해 達觀하며 어떠한 환경에도 잘 적응하고 만족하는(隨遇而安) 蘇軾의 독특한 정신면모를 잘 드러낸다. 이는 말년에 정치적으로 실의하여 庶人이 된 殷浩가 權臣 桓溫의 위세에도 굴하지 않고 자아의 내면적 만족을 추구하며 志士로서의 기개를 드러낸 것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첫 4구는 전고가 매우 치밀하게 운용되었다고 볼 수 있고, '與爾'를 썼을 때보다 더욱 깊은 뜻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詩話》를 포함하여 蘇軾 '和陶詩'를 수록한 이른 시기 판본들이 모두 '與我'라고 적고 있는 것은 결코 오류가 아니며, 오히려 교감학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異文을 제시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43) 宋丘龍 《蘇東坡和陶淵明詩之比較研究》(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2), 142쪽. 필자도 拙著 《蘇軾'和陶詩'考論》(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3), 120-121쪽에서 이러한 설을 받아들인 바 있다.

44) 權臣 桓溫 앞에서, 겉으로는 당신처럼 대단한 사람과 빗댈 엄두도 못 냈음을 말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당신 따위는 엄두에 두지도 않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45) 劉義慶 《世說新語》卷中之下: 「桓公少與殷侯齊名, 常有競心. 桓問殷: “卿何如我?” 殷云: “我與我周旋久, 寧作我.”」(《四部叢刊初編》子部, 據明袁氏嘉趣堂刊本影印)

46) 《詩話》本에 적힌 3, 4구는 「豈知磁石鐵, 雖合猶有間」이다. '豈知'는 다른 판본에 모두 '豈止'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어찌 자석과 쇠의 관계 정도에 그치겠나? 그네들은 비록 붙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틈이 있는 것을.」

俯仰還家, 순식간에 집에 돌아와
 下帷闔門, 수레에서 내려 문을 닫네.
 (《和陶歸去來辭》, 만송본 권12)
 - 黃州本, 施顧註本 同/《續集》: □47), 孔本: 車

위 시구에 대한 판본상의 출입에 대해서 필자는 본고에서 주로 참조한 판본들뿐만 아니라 蘇軾의 《和陶歸去來辭》를 수록한 판본들을 두루 살펴보았다. 그 결과 《詩話》에 나오는 ‘下帷’가 본래 문자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明版 《續集》의 공란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115권본 《東坡全集》에는 ‘下車’로, 32권본 《東坡先生詩集註》(속칭 ‘新王本’)에는 ‘下馬’로 되어 있다. 淸版 《施註蘇詩》에는 이 작품이 실리지 않았고, 查愼行本 《蘇詩補註》에서 明版 《東坡全集》의 ‘下車’를 수용한 이래로 馮應榴의 合註本과 王文誥의 集成本 모두 그것을 따랐다. 그러나 宋 王震震의 《古文集成》이나 宋 邵浩의 《坡門酬唱集》에도 ‘下帷’로 되어 있음에 주목하면, 명대 이전의 판본은 모두 글귀를 같이 하므로, 후대 판본에만 나타나는 ‘下車’ 혹은 ‘下馬’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 보인다.⁴⁸⁾ 이 밖에도 孔本과는 다르지만 기타 초기 판본들과 같거나 비슷한 글귀는 《詩話》에 빈번히 등장한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들을 정리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⁴⁹⁾

《詩話》본 원문	기타 판본과의 비교
知君非金石, 安足長託附. (《和陶神釋》, 화산본 권2)	黃州本, 施顧註本, 《續集》 同/ 孔本: 得
斗水何所直, 遠汲愁姜詩. (《和陶乞食》, 화산본 권3)	黃州本 ⁵⁰⁾ , 《續集》 同/ 施顧註本, 孔本: 苦
紅蓼與紫芋, 遠插牆四周. (《和陶酬劉柴桑》, 화산본 권4)	黃州本, 施顧註本, 《續集》 同/ 孔本: 芽 ○按: 芽는 形近之訛 ⁵¹⁾ 로 보임

47) 글자가 지워져 있어 확인할 수 없음을 뜻한다.

48) 《東坡全集》 115권, 《東坡先生詩集註》 32권, 淸版 《施註蘇詩》, 查愼行本 《蘇詩補註》, 王震震 《古文集成》, 邵浩 《坡門酬唱集》 등은 모두 《文淵閣四庫全書》本을 참조하였다.

49) 통행본과의 출입을 보여주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번역과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按’이라고 쓰고 간단한 校語를 덧붙이도록 하겠다.

《詩話》본 원문	기타 판본과의 비교
顧慙桑榆暹(按: 他本皆作迢), 久(按: 黃州本作豈)厭詩酒娛. (《和陶贈羊長史》, 화산본 권4)	黃州本, 施顧註本, 《續集》同/ 孔本: 書
引吭伸兩翮, 太息意不舒. 吾生如寄耳, 何者爲我廬. (《和陶擬古九首》其三, 황선주 소장본 권8)	黃州本, 施顧註本, 《續集》同/ 孔本: 翅 黃州本, 施顧註本, 《續集》同/ 孔本: 吾
遺我古貝布, 海風今歲寒. (《和陶擬古九首》其五, 上同)	《續集》同/ 黃州本: 古貝/ 施顧註本, 孔本: 古貝
豈惟舞獨鶴, 便可躡飛鸞 (《和陶擬古九首》其五「再和寒字韻」52), 上同)	黃州本, 《續集》同/ 施顧註本은 이 작품을 실지 않음/ 孔本: 攝
沉香作庭燎, 甲煎紛相和. (《和陶擬古九首》其七, 上同)	黃州本, 《續集》同/ 施顧註本, 孔本: 粉
微風度衆竅, 誰信我忘身. (《和陶雜詩十一首》其一, 황선주 소장본 권9)	黃州本: 渡/ 施顧註本, 《續集》, 孔本: 動
哀哉亦可羞, 世路皆羊腸. (《和陶雜詩十一首》其三, 上同)	黃州本, 施顧註本, 《續集》同/ 孔本: 何
典衣作重九, 徂歲慘將寒. (《和陶貧士七首》其五, 황선주 소장본 권10)	黃州本, 施顧註本 同/ 《續集》, 孔本: 陽
幽人掩牕臥, 明景翻空廬. (《和陶讀山海經十三首》其一, 만송본 권11)	《續集》: 窗 ○按: 實同/ 黃州本, 施顧註本, 孔本: 關
辛勤破封執, 苦語劇移山. (《和陶讀山海經十三首》其二, 上同)	黃州本, 《續集》同/ 施顧註本, 孔本: 蟄
子政信奇逸, 妙筭窮陰陽. (《和陶讀山海經十三首》其四, 上同)	黃州本, 施顧註本, 《續集》同/ 孔本: 洵
支解竟不傳, 化去空復(按: 他本皆作餘)悔. (《和陶讀山海經十三首》其十, 上同)	黃州本, 《續集》同/ 施顧註本: 屍, 孔本: 尸
鄭君固(按: 一作故)多方, 玄翁所親旨(按: 他本皆作指). (《和陶讀山海經十三首》其十一, 上同)	黃州本, 施顧註本, 《續集》同/ 孔本: 元 ○按: 元은 淸 康熙帝의 휘(玄燁)를 피한 것임.
古強本妄庸, 蔡誕亦夸士. (《和陶讀山海經十三首》其十二, 上同)	黃州本, 施顧註本, 《續集》同/ 孔本: 庸妄
均海南與漠北, 挈往來而無憂. (《和陶歸去來辭》, 만송본 권12)	黃州本, 施顧註本, 《續集》同/ 孔本: 漢

50) 黃州本에서는 앞 구의 '斗水'를 '斗酒'라고 하였는데 이는 틀림없이 오류이다.

51) 글자의 형태가 유사함에 따라 간행 당시 범한 오류를 가리킨다.

52) 화산본에 수록된 《詩話》의 목록에는 「內完字韻再和一首」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중국학자 楊焘은 목록의 「完字韻」이 결코 정확하지 않고, 황선주 소장본에 나오는 「寒字

《詩話》본 원문	기타 판본과의 비교
<p>驚六用之無成, 自一根而反流. 望故家而永息, 曷中道而三休. (上同)</p>	<p>黃州本, 施顧註本, 《續集》 同/ 孔本: 警</p>
	<p>黃州本 同/ 施顧註本, 《續集》: 之反流, 孔本: 之返流</p>
	<p>黃州本, 施顧註本 同/ 《續集》, 孔本: 求</p>
	<p>黃州本, 施顧註本, 《續集》 同/ 孔本: 之</p>
<p>和百篇之清詩. 賦歸去來之新引. (上同)</p>	<p>黃州本, 施顧註本 同/ 《續集》, 孔本: 新</p>
	<p>他本皆無去一字</p>
	<p>黃州本 同/ 施顧註本, 《續集》, 孔本: 清</p>

요컨대, 《詩話》本에는 새롭고 합리적인 글귀뿐만 아니라, 다른 판본과 겹치기는 하지만 통행본과는 달라 주목할 만한 글귀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 이러한 글귀들은 蘇軾 ‘和陶詩’의 교감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이나 일반 독자들이 그것을 읽고 이해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2. 호환이 가능한 글귀와 판본상의 오류

위에서 살펴본 새롭고 합리적인 글귀나 여타 판본과 출입하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글귀들을 제외하고도, 《詩話》本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다른 蘇軾 ‘和陶詩’ 판본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異文들이 더 남아 있고 그 수량도 매우 많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비록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지만 충분히 여타 판본들의 글귀와 호환될 수 있다.

禽魚豈知道, 새와 물고기가 어찌 도를 알겠는가마는

韻」으로 고쳐야 한다고 보았다. (楊焄 〈新見《精刊補註東坡和陶詩話》殘本文獻價值初探〉, 92쪽) 그러나 ‘完’은 해당 작품의 첫 번째 운자이고 ‘寒’은 마지막 운자이므로, ‘寒’이 옳고 ‘完’이 틀렸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我適物自然. 내가 한적함을 얻으니 外物 또한 절로 그렇게 되네.
 悠悠未必爾, 유유자적함이 반드시 이와 같지는 않겠지마는
 聊樂我所賢. 그럭저럭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즐기리.
 (〈和陶歸園田居六首〉其一, 화산본 권2)
 - 黃州本, 施顧註本, 《續集》, 孔本: 自閑, 所然

이 시의 원작인 陶淵明의 〈歸園田居〉其一에 사용된 韻字는, 山·年·淵·田·間·前·煙·顛·閑·然 이상 10가지이다. 그것에 대해 次韻한 蘇軾의 작품은 《詩話》本을 따를 경우, 끝에서 두 번째 운자 閑이 사라진 자리를 마지막 운자 然이 차지하고, 然의 자리는 다시 賢이 차지하게 된다. 《詩話》를 제외한 나머지 판본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모두 원래 韻字 10가지를 완전히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때 원문의 해석은 「내가 한적함을 얻으니 사물 또한 절로 한가해지네」와 「그럭저럭 내식대로 즐기려네」로 약간의 변화가 생겨난다. 그러나 《詩話》本の 글귀 역시 韻字의 문제를 제외하면 호환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⁵³⁾ 이와 같이 다른 판본과 충분히 호환될 수 있는 글귀는 《詩話》 도처에서 발견되는데, 이를 다 소개하는 것은 지면 관계상 무리이므로, 고려대 화산본 권1-2에 보이는 것들만 통행본의 글귀와 대조해보도록 하겠다.⁵⁴⁾

詩題(和陶~)	통행본 원문	《詩話》本 원문	
停雲	颶作海暈, 天水冥濛.	颶風海暈, 天水冥濛.	화산 권1
	夢幻去來, 誰少誰多.	夢幻去來, 誰云少多.	
時運	木固無脛, 瓦豈有足.	石固無脛, 瓦豈有足.	

53) 마지막 韻字 두 개가 다소 특이하게 사용된 것에 대해서, 《詩話》에는 다음과 같은 주석이 달려 있다. 「陶淵明詩를 수록한 옛 판본에는 '賢'字韻 하나가 빠져있다.(陶詩舊本脫賢字一韻)」 이 말은 무심코 보면 주석자(아마도 蔡正孫 본인일 것이다)가 살던 시기에 '賢'字韻을 사용한 새로운 陶淵明詩 판본이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詩話》에 실린 陶淵明의 원작을 보면 소위 '賢'字韻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여타 판본과 동일하게 '然'字韻으로 끝을 맺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필자가 보기에 이 주석은 주석자 본인이 파악한 蘇軾의 和作에 특이하게도 '賢'字韻이 마지막 운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고, 과거부터 그가 살던 시기까지 이미 출간된 陶淵明詩 판본에 누락이 생겼을 것이라고 주석자가 추측한 데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된다.

54) 이체자(예컨대 〈和陶時運〉에 보이는 '脛'과 '脛')나 널리 알려진 通用字 그리고 '冥濛'과 '冥濛'처럼 큰 차이가 없는 것들은 주요 고찰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詩題(和陶~)		동행본 원문	《詩話》본 원문	
勸農	序	俗以質香爲業	俗以貨香爲業	
	詩	斬艾蓬蒿, 南東其畝.	斬艾蓬蒿, 南東其畝.	
		父兄搢屨, 以扶游手.	父母搢屨, 以扶游手.	
影答形		丹青寫君容, 常恐畫師拙.	丹青寫君容, 常苦畫師拙.	
九日閑居		龍山憶孟子, 栗里懷淵明.	龍山憶孟嘉, 栗里懷淵明.	
歸園 田居 六首	序	時荔子纍纍如芡實矣.	時荔子纍纍已黃實矣.	
		及是可食, 公能携酒來游乎?	是可以食, 能携酒來游乎?	
	一	門生饋薪米, 救我廚無煙.	門生饋薪餐, 救我廚無煙.	
	二	江鷗漸馴集, 蟹叟已還往.	江鷗漸馴集, 蟹叟久還往.	
	三	步從父老語, 有約吾敢違.	出從父老語, 有約吾敢違.	
	五	願同荔支社, 長作雞黍局.	願同荔枝社, 長歌雞黍局.	
	六	斜川追淵明, 東臯友王績.	斜川追淵明, 東臯企王績.	

이렇게 호환이 가능한 글귀들은 蘇軾 ‘和陶詩’의 원문을 풍부하게 해주고, 보다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그 교감학적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더욱이 蘇軾 본인이 어떤 글귀를 썼을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상기 《詩話》의 異文을 성급히 오류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호환이 가능한 글귀를 포함하여 《詩話》의 異文 가운데 판본상의 오류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여타 판본에서는 동일한 글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詩話》에서는 그것과 형태가 유사한 다른 글자를 사용한 경우, 이른바 ‘形近之訛’일 가능성이 크다. 위에서 예로 든 것들 가운데서 살펴보면, 「俗以貨香爲業」의 ‘貨’와 「斬艾蓬蒿」의 ‘蒿’는 다른 판본에 모두 ‘質’와 ‘藿’로 되어 있고(이상 〈和陶勸農〉), 「出從父老語」의 ‘出’은 모두 ‘步’로 되어 있다(〈和陶歸園田居六首〉其三). 앞의 글자로 해석해도 뜻이 통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형태가 유사함에 따른 오류일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고려대 화산본 권1-2 밖에서 관련된 예를 좀 더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⁵⁵⁾

55) 왼쪽이 다른 판본들의 일반적인 시구이고, 오른쪽이 《詩話》의 시구이다.

當歡有餘樂 / 常歡有餘樂 (〈和陶怨詩楚調示龐主簿鄧治中〉)
 草去上自隕 / 草去土自隕 (〈和陶五月旦作和戴主簿〉)
 獨有一荷葉杯 / 猶有一荷葉杯 (〈和陶連雨獨飲序〉)
 糾纏不吾欺 / 糾纏不吾欺⁵⁶⁾ (〈和陶連雨獨飲〉其一)
 此覺無所還 / 此竟無所還⁵⁷⁾ (〈和陶連雨獨飲〉其二, 이상 화산 권3)
 何必挾日月 / 何必挾明月 (〈和陶和郭主簿〉其二)
 莫作往來相 / 莫作往來想 (〈和陶於王撫軍座送客〉)
 顧慙桑榆迫 / 顧慙桑榆逼⁵⁸⁾ (〈和陶贈羊長史〉, 이상 화산 권4)
 我生值良時 / 我生信良時⁵⁹⁾ (〈和陶始作鎮軍參軍經曲阿〉)
 莫赴花月期 / 莫趁花月期 (〈和陶辛丑歲七月赴假還江陵夜行塗中〉, 이상 화산 권5)
 一月同臥起 / 一月同臨起 (〈和陶止酒〉, 황선주 소장본 권8)
 我知公所坐 / 我知公所生 (〈和陶雜詩十一首〉其五)
 稚川差可近 / 稚川差可追 (〈和陶雜詩十一首〉其六)
 常苦世褊迫 / 常恐世褊逼 (〈和陶雜詩十一首〉其七)
 看作栖鳳宅 / 看作栖鳳宅 (上同)
 放心餞華顛 / 放心踐華顛 (〈和陶雜詩十一首〉其九)
 欲濟東海縣 / 欲躋東海縣 (〈和陶雜詩十一首〉其十一, 이상 황선주 소장본 권9)
 庶幾二大夫 / 庶幾二丈夫 (〈和陶(詠)二疎〉, 황선주 소장본 권10)
 破冢割恩憐 / 破冢割恩憐 (〈和陶讀山海經十三首〉其五, 만송 권11)
 挹吾天醴 / 挹吾天醴 (〈和陶歸去來辭〉)
 納萬象而中觀 / 納萬像而中觀 (上同)
 豈以師南華 / 豈以歸南華 (上同, 이상 만송 권12)

56) 黃州本에도 「糾纏不吾欺」로 되어 있고, 《續集》에는 「糾纏不吾欺」로 되어 있다. 「糾纏不吾欺」는 施顧註本과 孔本에 나온다. 查慎行은 「別本作纏, 訛」라고 하면서 이전 판본에 보이는 「纏」字를 오류로 보았다. (查慎行, 《蘇詩補註》권42, 《文淵閣四庫全書》集部)

57) 竟(깨달을 '覺'의 이체자)을 竟으로 잘못 본 것으로 여겨진다.

58) 《詩話》本에서 '迫'자를 '逼'자로 쓴 예로, 아래에 나오는 「常恐世褊逼」과 그 원작인 陶淵明 〈雜詩十一首〉其七의 「四時相催逼」을 더 들 수 있다. 황선주·楊焘은 陶淵明詩의 「四時相催逼」을 호환이 가능한 글귀라고 보았다. (황선주·楊焘, 앞의 논문, 364 쪽) 그러나 蘇軾의 和作 뒤에 실린 蘇軾의 和作에는 다시 '迫'으로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몇 차례 실수를 범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59) 黃州本에도 「我生信良時」로 되어 있고 뜻이 역시 통하므로, 반대로 '值'가 形近之訛일 수도 있다.

위에서 든 《詩話》의 예문들이 모두 반드시 틀렸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외에도 《詩話》에는 다른 판본에 비해 손색이 있거나 ‘形近之訛’와는 다른 유형의 오류가 얼마간 더 존재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

上天信包荒, 하늘은 진실로 도량이 넓어 荒穢까지 다 포용하는데
 家貧無由豐. 집이 가난하여 풍족해질 길이 없구나!
 (〈和陶五月旦作和戴主簿〉, 화산 권3)

기타 판본에는 ‘家貧’이 ‘佳植’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 해석은 「하늘은 진실로 도량이 넓어 荒穢(황무지)까지 다 포용하니, 좋은 식물들이 풍성해질 길이 없구나!」가 된다. ‘家貧’을 쓰더라도 뜻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다음 구에 「호미와 곰팡이로 소슬한 날씨를 대신하고, 선택하여 잡초를 제거하니 서릿바람처럼 모든 식물을 시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네(鋤穢代肅殺, 有擇非霜風)」라는 말이 이어지는 것을 고려해볼 때 ‘佳植’만 못하다.

悞入無何鄉, 어떠한 인위도 없는 낙토 無何有之鄉에 잘못 밭을 들어
 掉臂嵇阮間. 嵇康과 阮籍 사이에서도 활개를 짓는다네.
 (〈和陶連雨獨飲〉其二, 화산 권3)

이는 전체 작품의 3·4구이다. 이 작품의 1·2구는 「나 이 사람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이처럼 거나하게 되었는가?(阿堵不解醉, 誰歟此頽然?)」로 시작한다. 그리고 4구에 나오는 嵇康과 阮籍은 ‘竹林七賢’에 속하는 사람들로서 모두 음주에 능하였다. 그렇다면 ‘無何有之鄉’과 관련이 적다. 다른 판본에는 「誤入無功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無功’은 바로 唐 王績의 字로, 그는 술 마시기를 무척 좋아하였고 저서로 《醉鄉記》를 남겼다. 그렇다면 《詩話》본의 ‘無何’는 ‘無功’의 잘못임에 틀림없다.

雲間與天上, 구름 사이로 그리고 하늘 위로
 待我兩友生. 나의 두 친구가 생겨나기를 기다린다.

(〈和陶辛丑歲七月赴假還江陵夜行塗中〉, 화산 권5)

이 시의 序는 「교외에 나가 달빛 아래 걸으면서 짓다(郊行步月作)」라고 하였다. 다른 판본에 입각하여 '天上'을 '地上'으로 고친다면, 아래 구에서 말하는 '두 친구(兩友)'가 바로 구름 사이의 달과 땅 위의 그림자임을 알게 되고, 이것이 李白의 시 〈月下獨酌〉에 나오는 「술잔을 들어 밝은 달을 맞이하고, 그림자를 대하니 세 사람이 되네(舉杯邀明月, 對影成三人)」의 전고를 암암리에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天上'으로 보자면 '두 친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불분명해진다.

時荔子纍纍已黃實矣. …… 是可以食, 能携酒來游乎?

이 때 여지가 이미 노랗게 익은 상태로 주렁주렁 열려 있었다. …… 이것은 먹을 수 있으니, 술을 가지고 오셔서 함께 마시며 노닐 수 있으신지요? (〈和陶歸園田居六首序〉, 화산 권2)

紹聖 원년(1094) 10월 蘇軾은 유배지인 惠州에 도착하였고, 이 글은 그 다음 해인 紹聖 2년(1095) 3월 4일에 지어졌다. '3월 4일'은 이 글의 첫 머리에 바로 나온다. 이 작품 이외에, 蘇軾은 여지와 관련하여 〈四月十一日初食荔支〉라는 작품도 남겼다. 그가 여지를 처음 먹은 날짜가 '4월 11일'이므로, 《詩話》본의 위 글귀는 모순이 있다. 다른 판본에는 「時荔子纍纍如芡實矣. …… 及是可食, 公能携酒來游乎?」로 되어 있고, 「이 때 여지 열매가 주렁주렁 가지런 열매처럼 열려 있었다. …… 이것이 먹을 수 있게 되면, 공께서는 술을 가지고 오셔서 함께 마시며 노닐 수 있으신지요?」 정도로 풀이가 된다. 여지가 노랗게 익었다는 말도 없고 오히려 아직 먹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어, '4월 11일'에 처음으로 여지를 먹게 되는 역사적 사실과 잘 부합하게 된다. 이 밖에 〈和陶移居二首序〉의 「절 뒤의 놀리는 땅 몇 畝를 얻게 되었다(得寺後隙地數畝)」(화산 권3)는 다른 판본에는 「歸善縣 治所의 뒤에 있는 놀리는 땅 몇 畝를 얻게 되었다(得歸善縣後隙地數畝)」로 되어 있다. 《詩話》본의 '寺'는 이 글의 앞부분에 나오는 嘉祐寺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蘇軾이 이른바 놀리는 땅을 얻어 白鶴峰新居를 완성하기 전에 잠시 嘉祐寺에 머물렀을 뿐, 그 땅이 진정 嘉祐寺 뒤에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른 판본에 한결같이 '歸善縣 治所의 뒤'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이것이 보다 정확한 정보라고

생각된다. 이 두 가지 예는 《詩話》가 蘇軾의 행적에 대해서 잘못되거나 불확실한 정보를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但念君千里, 足歷猶躊躇.
(《和陶贈羊長史》, 화산 권4)

이 두 구의 해석을 달지 않은 것은, 이 자체로 해석이 잘 안 되기 때문이다. 「다만 생각해보니 그대는 천리를 갈 수 있는데, 발이 땅을 지날 수 있는데도 오히려 주저하네」 정도로 억지로 해석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자연스럽지 않다. 다른 판본에는 「생각건대 그대는 천리마와 같은 이, 엄청나게 빨라 하루에 천리를 갈 수 있는 재주를 가지고서도 지금 오히려 머뭇거리고 있네(念君千里足, 歷塊猶踟躕)」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가 훨씬 자연스럽다. 여기서 '歷塊'는 《漢書·王褒傳》의 「도성을 지나고 나라를 넘어가는데, 그 질주하는 것이 마치 작은 땅 한 덩어리를 지나치는 것과 같네(過都越國, 蹶如歷塊)」를 출처로 하는 것으로, 顏師古의 註에서는 이에 대해 「작은 땅 한 덩어리를 지나는 것과 같으니, 그것이 매우 빠름을 말한 것이다(如經歷一塊, 言其疾之甚)」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구절에 대한 《詩話》의 주석에서도 「王褒頌: “越國過都, 蹶如歷塊.” 言駿馬之善馳也」라고 하면서, 역시 '歷塊'에 대한 뜻풀이를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詩話》의 두 구는 '塊'字가 빠지고 원래 앞 구의 마지막 글자인 '足'이 뒤 구에 달라붙은 형태가 되면서 생겨난 명백한 오류에 해당한다.⁶⁰⁾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詩話》본이 합리적이고 주목받을 만한 글귀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기타 판본에 비해서 손색이 있거나 오류에 속하는 글귀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蘇軾詩를 연구함에 있어서 《詩話》本을 활용하는 데에는 얼마간의 주의도 동시에 요구된다. 그러나 善本으로 인정받는 여타 宋元시기 판본들에 있어서도 유사한 오류가 보편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나치게 엄정한 태도로 그것의 장점마저 외면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결국 《詩話》本의 교감학적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며, 앞으로의 蘇軾詩 연구와 교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

60) 따로 '但'字를 어떻게 사용하게 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로 전망해본다.

IV. 결어

《詩話》本の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후 이미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까지 그것에 수록된 蘇軾 ‘和陶詩’를 전반적으로 校讀한 경우는 본고의 연구가 처음일 것이다. 원작인 陶淵明詩에 비해 蘇軾의 ‘和陶詩’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점, 그리고 蘇軾의 시 작품들이 상당히 난해하다는 점 등이 그간 이와 같은 형태의 연구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데에 일정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더 늦기 전에 필자가 이 작업을 초보적으로나마 진행했다는 점인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두 가지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다. 하나는 지금까지 발견된 《詩話》가 모두 殘本이고 그것을 합치더라도 아직까지 완전한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詩話》의 가치가 원문보다는 傅共, 蔡眞逸, 蔡正孫 등의 새로운 주석과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자가 덧붙인 역대의 ‘詩話’들에 있음은 자명한 사실인데, 필자가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詩話》의 나머지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견될 수 있기를 고대하면서, 동시에 원문 이외의 주석과 詩話 부분에 대한 연구를 앞으로 계속해나갈 것임을 다짐하는 바이다.

글을 닫기에 앞서 이번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비록 본고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詩話》와 관련하여 별도의 흥미로운 발견을 한 것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문에서 필자는 화산본 《詩話》 권2에 수록된 蘇軾의 〈和陶歸園田居六首〉其一の 마지막 운자 두 개가 다소 특이하게 사용된 문제를 다룬 바 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문인 象村 申欽(1566-1628)이 자신이 지은 〈和陶歸園田居〉其一到 단 自註에서 이것과 관련된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연명시의 운자는 옛날 판본에는 ‘賢’자 하나가 더 있었던 까닭에 동파가 ‘賢’자로 압운하였다. 그런데 지금 전해지는 판본에는 다만 ‘然’자로 끝나는 것만 있다. 나는 지금 판본을 따르고자 한다.(陶韻昔本多一賢字, 故東坡押賢, 而今本則只有

然字爲結，從今本)

신흠이 「陶韻昔本多一賢字」라고 한 것은 당시에 '賢'字韻을 사용한 이른바 '昔本'이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읽은 蘇軾의 〈和陶歸園田居〉其一의 압운 상황을 보고 추측하여 말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詩話》 주석자가 「陶詩舊本脫賢字一韻」이라고 말한 것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⁶¹⁾, 이를 통해 유추해볼 때 신흠이 당시 읽었던 蘇軾 '和陶詩' 판본은 어찌면 《詩話》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필자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蘇軾 '和陶詩'를 수록한 판본 가운데 〈和陶歸園田居〉其一의 마지막 운자가 '賢'인 것은 《詩話》본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런 추측의 개연성은 상당히 높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詩話》본이 조선사회에 유통되고 활용되던 일면을 여실히 보여주게 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參考文獻】

- 劉義慶, 《世說新語》, 《四部叢刊初編》本.
 房玄齡 等, 《晉書》, 北京, 中華書局, 1997.
 蘇軾《東坡先生和陶淵明詩》4卷, 臺灣國立中央圖書館所藏 南宋 黃州刊本.
 蘇軾, 施元之·顧景蕃合註, 鄭騫·嚴一萍編校《增補足本施顧註蘇詩》, 臺北, 藝文印書館, 1980.
 蘇軾, 《東坡七集》,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0.
 蘇軾, 查慎行補註, 《蘇詩補註》, 《文淵閣四庫全書》本
 蘇軾, 馮應榴輯註, 黃任軻·朱懷春校點, 《蘇軾詩集合註》,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
 蘇軾, 王文誥輯註, 孔凡禮點校, 《蘇軾詩集》, 北京, 中華書局, 1996.
 蘇軾, 茅維編, 孔凡禮點校《蘇軾文集》, 北京, 中華書局, 1999.
 陳振孫, 《直齋書錄解題》,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5.

61) 주 53)를 참조하기 바람. 한편 「陶詩舊本脫賢字一韻」과 「陶韻昔本多一賢字」는 상반된 뜻의 '脫'과 '多'를 제외하면 문자에 있어서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상반된 뜻의 글자가 사용되었다고 해서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상황을 가리키고 있다고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 馬端臨,《文獻通考》,北京,中華書局,2003.
- 唐圭璋,《詞話叢編》,臺北,廣文書局,1970.
- 宋丘龍,《蘇東坡和陶淵明詩之比較研究》,臺北,臺灣商務印書館,1982.
- 劉尚榮,《蘇軾著作版本論叢》,成都,巴蜀書社,1988.
- 袁行霈,《陶淵明集箋註》,北京,中華書局,2003.
- 金程宇,《稀見唐宋文獻叢考》,北京,中華書局,2009.
- 吉井和夫,〈兩足院本《東坡集》校勘記(一) — 東坡和陶詩(上)〉:《文藝論叢》第27號,大谷大學文藝學會,1986.
- 章培恒·徐艷,〈關於五卷本《東坡志林》的真偽問題〉:《南京師範大學文學院學報》2002年 第4期.
- 卞東波,〈韓國所藏孤本詩話《精刊補註東坡和陶詩話》考論〉:《域外漢籍研究集刊》第5輯,北京,中華書局,2009.
- 黃瑄周·楊焄,〈한국본 《精刊補註東坡和陶詩話》校讀〉:《中國語文學論集》第71號,中國語文學研究會,2011.
- 楊焄,〈新見《精刊補註東坡和陶詩話》殘本文獻價值初探〉:《文學遺產》2012年 第3期.
- 洪瑞妍,〈朝鮮本《精刊補註東坡和陶詩話》에 대한 문헌적 고찰〉:《中國語文論叢》第54輯,中國語文研究會,2012.
- 拙稿,〈宋元時期 蘇詩版本에 대해서〉:《中國文學》60輯,韓國中國語文學會,2009.
- 拙稿,〈明代 蘇詩版本에 대해서〉:《中國語文論叢》第46輯,中國語文研究會,2010.

【中文提要】

本文對朝鮮刊本《精刊補註東坡和陶詩話》(以下簡稱“《詩話》”)所收錄的蘇軾“和陶詩”原文進行了文獻考證及校勘研究。下面概括本文中討論的內容。

第一、筆者首先探討了《詩話》本所收錄蘇軾“和陶詩”原文的底本問題。其結果表明：就現存的資料來看，我們無法考證哪個系統的版本是《詩話》的底本。有些學者認為《詩話》似乎是以《和陶詩》來作為底本校錄蘇詩的，而這個判斷值得我們商榷。不過，本文又發現《詩話》的編者在編撰過程中，曾經參考並利用過以往的一些版本。

第二、將《詩話》所收錄的蘇詩原文與其它版本中的文字進行比較，能夠發現《詩話》具有與諸本不同而比較合理的文字，同時還具有與若干版本一致而與

通行本卻有出入的文字。這些異文都在蘇詩的校勘上具有很大的價值。

第三、《詩話》本還有較多的可以與其它版本互相替換的文字。但是它還具有不少版本上的訛誤，尤其是形近之訛比較多。并且，與其它版本相比，某些地方在思想內容的表現上稍遜一籌。由此看來，在校勘蘇詩的時候，我們應該積極參考《詩話》，但同時還需要保持一定程度的謹慎。

筆者希望以上的研究能夠提高讀者對《詩話》的了解，并且能夠對日後的蘇詩研究及校勘有所裨益。

【主題語】

精刊補註東坡和陶詩話, 蘇軾, 陶淵明, 和陶詩, 蔡正孫, 校勘, 版本

투고일: 2014. 1. 15 / 심사일: 2014. 1. 20~2. 5 / 게재확정일: 2014. 2. 10

